섬기러 오신 예수님

말씀 : 마가복음 10:32-52

요절 : 마가복음 10:45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미국인들이 가장 취업하고 싶어 하는 회사 중에 Tim hass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의 사훈은 “우리는 이웃을 돕기 위해 존재한다(We exist to help those in need)”입니다. 팀 하스의 경영철학은 잠언 31장을 기초로 어려운 이웃과 영혼을 섬기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 학원 원장님들의 사훈은 무엇입니까? 이 회사는 2009년 미국금융위기 때 해고 대란이 일어났는데 당장 직원들이 어려운 이웃이란 생각으로 단 한명도 해고하지 않았습니다. 또 이웃을 돕는 것도 훈련이 필요하며 직원들을 다양한 이웃돕기에 참여하도록 격려했다고 합니다. 이윤을 최고의 목표로 삼는 기업들 틈바구니에서 어려운 이웃과 영혼을 섬기고자 하는 기업의 사훈이 놀랍기만 합니다. 오늘 말씀은 흔히들 마가복음의 전체 요절이라고 일컬어지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특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말씀하십시오 제자공동체 더 나아가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섬기러 오신 예수님을 배우고 우리들도 섬기는 인생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할 일을 전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고난당하실 것을 처음으로 언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로마군병들에 의해서 능욕과 침 뱉음을 받으시고 채찍질당하시고 십자가형으로 죽으십니다. 그러나 삼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예수님은 마치 월드컵 전후반전 하이라이트처럼 십자가 하이라이트를 편집해서 자신이 당하실 내용을 그대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고난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심으로 그들이 마음준비를 하며 고난 후에 부활을 알려주심으로 그들이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셨습니다.

1. 섬기러 오신 예수님(32~45)

32절을 다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 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열두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본문은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그들 앞에 서서 가셨기에 그들이 그 모습만으로도 놀라고 또 따르는 자들은 두려운 마음이 들었을까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은 죽음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죽음은 세상에서 가장 두렵고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고난의 길에 선두에 서셨습니다. 예수님이 비장하고 결의에 찬 모습으로 앞서 가시니 제자들과 따르는 이들이 놀라워하고 두려워하였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시고 자신이 당하실 일을 다시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35절을 보십시오. “세배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아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죽으러 올라가시는 길이셨습니다. 또 방금 자신이 받을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배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 자신들이 구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들어주시도록 간구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자신들의 엄마를 데리고 와서 부탁했습니다. (마 20:20) 그들의 어머니 살로메는 마리아의 동생으로 예수님에게는 인간적으로 이모가 되는 분이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자신들이 예수님과 이종사촌이라는 관계를 이용하여 뭔가를 청탁하고자 했습니다. 이렇게 인사청탁을 받은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불의한 제자들을 강하게 책망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말을 하였으니 3일 금식하고 회개소감을 써오라’ 이렇게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평상시라고 해도 인맥을 동원한 부정한 인사 청탁에 화가 났을 것입니다. 하물며 십자가 하이라이트의 불도 아직 꺼지지 않았는데 인간적으로 너무한 것이 아닌가, 요즘 초등생들 말로 인성이 별로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수난 예고에도 불구하고 중보기도는커녕 아무도 이해해주지도, 또 동역해 주지도 않는 제자들 보며 고독한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33,34절을 다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고 침 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삼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자신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세 번째로 하신 말씀입니다.(8:31, 9:31)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당

그러나 예수님은 우선 그들의 간절한 청탁내용이 무엇인지 듣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무엇을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지 물으셨습니다.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러자 그들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37절을 보십시오. “여짜오되 주의 영광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소원은 주님이 곧 영광을 얻으실 터인데 그들 형제가 주님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지상 메시아가 될 것으로 알고 있었고 거사 전에 자

리보장을 확실히 해두고자 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다고 누차 말씀하셨음에도 예수님이 영광을 얻으실 것으로 믿었습니다. 아마 그들은 예수님은 왕위등극에 약간의 고난이 있지만 결국은 다윗과 같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으로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 때 예수님을 제외하고 서열 1,2위의 자리를 보장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의 간절한 소원은 베드로를 제치고 예수님 제외하고 1인자의 자리에 앉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청탁을 한 이유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베드로를 이길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형제끼리 뭉쳤고 그것도 모자라 친인척 연줄까지 동원했습니다. 이런 그들의 행동을 보면 그들이 얼마나 주님의 좌우편 자리를 원하고 그것을 놓칠까 염려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왜 그토록 주님의 좌우편 자리를 원했던 것일까요? 42절에 기초해서 보면 그들이 생각하기에 그 자리는 임의로 주관하는 자리요, 권세를 부리는 최고 권력자의 자리였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도,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럴 때 자신들이 위대한 자가 되고 참으로 만족스러울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간절한 청탁에 뭐라 답하셨습니까? 38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예수님은 그들이 자신이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모릅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세상 왕이 되시려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습니다. 또 그들은 이번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의 의미를 잘 모릅니다. 또한 그들은 자신들이 구하는 것이 자신들을 정말로 위대하게 하고 행복하게 할 것으로 잘못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고난과 죽음의 길을 걸으시고자 하는 데 예수님 좌우편 자리를 요구하니 참 어이가 없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 좌우편에는 두 십자가의 죄수가 달릴 것인데 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두 제자가 위대한 자, 영광스러운 자가 되고자 하는 소원을 가지고 있음을 귀하게 보시고 그들이 예수님이 가시는 고난의 길을 따라올 수 있는 지 물으셨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질문의 의미를 잘 모르고 입을 모아 “할 수 있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중국지하교회에서는 교회서열 1,2위가 되는 것은 감옥에 가거나 사형을 당할 1순위, 2순위가 되는 것이기에 아무나 자원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예수님의 질문의 의미가 그저 메시아 왕국을 세우는 데 수반되는 약간의 고난 정도로 알았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그들의 결단을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이 마시는 고난의 잔과 죽음의 세례를 받도록 하셨습니다. 이 주님의 말씀대로 제자 야고보는 첫 순교자로서 죽음의 독배를 마셨습니다. 그리고 사도요한은 끝까지 남아서 고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두 형제에게 예수님 좌우편의 자리를 보장하지는 않으셨습니다. 40절을 보십시오.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는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예수님 좌우편에는 누가 앉을까요? 모세와 엘리야일까요? 주기철 손양원 목사님일까요?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 자리는 청탁으로 보장되지 않고 하나님이 가장 합당한 분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41절을 보십시오. 열 제자는 야고보와 예수님의 대화를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화를 냈습니다. 그들이 화를 낸 것은 그들도 영광의 자리에 앉고자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고, 특별히 그 두 형제가 페어플레이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영광의 자리에 앉고자 하는 마음은 비단 야고보와 요한, 베드로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철학자 니체는 인간 존재의 본질은 ‘권력에 대한 의지’라고 했습니다. 지배의 욕구는 인간 존재의 깊은 곳에 뿌리박고 있는 가장 강렬한 욕구중 하나입니다. 열두 제자들도 이방 집권자들의 영향을 받아 자기들도 그런 권세를 누리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현재 제자들은 서로 누가 크냐 하는 문제로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이런 제자들을 그대로 놔두고 가시면 제자 공동체가 파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 공동체, 더 나아가 교회 공동체가 유지되고 발전될 수 있는 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42~44절을 다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이 세상집권자들과 고관들을 은근히 부러워하고 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로마의 집권자들과 고관들은 사람들을 자기 맘대로 주관하면서 권세를 부렸습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임의대로 권세를 부리는 것이 위대한 자가 되는 것이며 그럴 때 만족감이 넘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온갖 특권과 특혜가 따르고 돈이 따라오기 때문에 기를 쓰고 높은 자리에 앉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도 일단 그 사람이 국회의원의 자리에 앉게 되면 어마어마한 특전이 주어진다 합니다. 연봉 1억 4천만원이 주어지고, 보좌관 6명을 거느릴 수 있습니다. KTX, 버스, 선박, 항공료 모두다 무료입니다. 외국에 나가면 재외공관의 영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비행기는 비즈니스석도 아닌 1 등석에 탑승할 수 있고, 복잡한 수속절차를 밟지 않고, 귀빈실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중에 하나라도 누리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이 위대한 사람인 것으로 생각할지 몰라도 제자공동체에서는 그러지 않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제자 공동체에서는 위대함의 척도가 다릅니다. 제자공동체에서 위대해지고자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자가 되고 모든 사람의 종

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섬기는 자는 헬라어 디아코노스인데 일꾼, 협력자, 봉사자라는 뜻입니다. 일반 가정에서 섬기는 사람 곧 집사를 가리키고, 종은 공식적인 노예들을 가리킵니다. 집사도 주인과 그 자녀들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느 정도 인격이 있고 자기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종은 노예로서 완전히 자기가 없이 국가와 주인을 위해 사는 자들로서 섬기면서 조금도 자기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자기 의가 전혀 없습니다. 그들은 섬김을 당연시하고 섬김의 댓가를 전혀 요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집사와 같이, 노예와 같이 섬기는 사람이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면 사람들이 두 가지 때문에 놀란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는, 올 사람이 안오고 오지 못할 것 같은 사람이 왔다는 사실이고, 다른 하나는 세상에서 위대하게 보이던 분들이 사실은 너무나 초라하고, 평범해 보이던 분들 중에 참으로 위대한 분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유머가 있습니다. 어떤 장로님이 하늘나라에 가서 천사의 영접을 받았습니다. 옆에 보니 아무개 집사님이 먼저 와서 탕수육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장로이기에 더 좋은 요리로 대접받을 줄 알았더니 짜장면 한 그릇을 던져주고 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천사에게 자신은 명색이 장로인데 집사보다 못한 대접을 해주냐고 불평했습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말하기를 “그것도 감사해라, 너희 담임목사는 배달나갔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천국에서는 위대함의 평가가 세상과 정반대일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아마도 천국에 가면, 스태프 목사님들은 가장 초라한 자가 될 것 같습니다. 반대로 매번 섬기는 것이 익숙한 사모님들과 학생회 목사들은 위대하게 빛날 것 같습니다.

헤르만 헷세의 “동방순례(Journey to the east)”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한 기독교 교단에 속한 사람들이 동방으로 순례를 떠납니다. 그 순례단 속에는 거의 모든 잡일을 도맡아서 처리하고 식사준비를 도와주는 레오라는 하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항상 미소를 띠고 있습니다. 점차 순례객들이 긴 여행에서 지쳐갈 즈음에는 그는 휘파람을 불며, 또 여유가 있으면 악기를 연주해서 여행에 지친 사람들을 즐겁게 하였습니다. 레오는 순례자들을 돌아다니며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살피며 순례자들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지치지 않도록 배려해 주었습니다. 그렇다고 일부로 튀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특별히 이 사람을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레오라는 친구가 갑자기 사라집니다. 그때부터 순례단 안에는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화목했던 그들이 서로 다투고 갈등하고 긴장하고 싸우게 됩니다. 그들은 어디로 가야 할 것인지 방향을 잃어버리고 그들의 조화는 깨어지게 됩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때 누군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레오가 없기 때문이야, 레오가 없어졌기 때문이야” 그리고 그들은 그 순간 아주 놀라운 진리 하나를 발견했는데 그것은 그들 중의 하인에 불과하였던 레오가 사실은 그들

의 리더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사실 하인이었던 그 레오는 그들을 파송한 교단의 매우 중요한 최고 지도자중의 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가 하인의 모습을 하고 그들 가운데 와서 사실은 순례단을 이끌고 있었던 것입니다. 리더가 종이 되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한 달 후면 여름수양회가 시작됩니다. 수양회에 가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로 편안한 의자에 앉아서 은혜로운 프로그램을 즐깁니다. 방안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때마다 수박, 옥수수, 감자, 다과 등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거저 된 것이 아닙니다. 수양회 전부터 계획을 세우고 와이마트를 탈탈 털어서 장을 봐오고, 수양회 때는 뒤에서 섬기는 실무자들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섬김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또 은혜로운 말씀역사가 섬겨지기까지 두달 전부터 말씀 프로그램을 정하고 기도합니다. 결혼하신 목사님들을 포함해서 말씀강사모임을 매일 하면서 합숙 하다시피 몸부림치는 치열한 영적 싸움을 쉬지 않고 감당하기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또 말씀소감 한 편이 완성되기까지는 그 뒤에서 양들과 목동들을 붙들고 씨름하는 목자들의 헌신과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찬양과 기도의 밤이나 특송이 무대에 올려지기까지 그 뒤에서 몇 주 동안 고민하고 힘쓰고 애써 섬긴 사람들의 노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뒤에서 섬긴 사람들은 무대 전면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다 아십니다. 다 보고 계십니다. 진정으로 위대한 자가 누구인지, 진정으로 큰 자가 누구인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섬기는 자가 되고 또 모든 사람의 종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45절을 다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가 아무리 섬기는 것이 기쁘다고 하지만 어찌 힘들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위대한 섬김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위대한 자가 되는 길을 말씀만 하지 않으시고 실제로 그 길을 걸으신 예수님을 배울 때 가능합니다. 예수님은 섬김을 받기에 마땅하신 창조주 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섬김을 받지 않으시고 도리어 섬기려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섬기되 흥내만 내지 않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자기목숨을 대속물로 내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섬김은 가장 진정성 있는 섬김입니다. 이 예수님을 목상하고 이 예수님을 배우고 이 예수님과 연합할 때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과 감동으로 섬김의 길을 기쁨으로 걸을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은 바로 이 예수님을 배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우는 기쁨과 감동이 있습니까? 우리가 많이 섬기고 희생하지만 예수님을 배우지 않으면 슬프고 힘들기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배울 때 기쁨이 충만하며 주님의 위로를 받고 확신 가운데 섬기는 종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수님을 배우는 기쁨과 감동과 확신으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는 잘 섬기는 것 같지만 실은 형제만 넷인 집에 장남으로 태어나, 세명의 동생들을 임의로 주관하여 지시하고 무엇을 시키는 것이 익숙하게 살아왔습니다. 지금은 예수님을 배우고자 섬김과 헌신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양들을 섬기기 위해 낮아진다는 것이 때론 굴욕적이고 내가 이러려고 목자로 산다고 했는가 자괴감이 들 때도 있습니다. 올 초부터 7부에 학원개원 바람이 불면서 여러 가지 허드렛일을 하며 동역자들을 섬겼습니다. 센터에 잡다한 일만 하고 다니는 모습을 보며 동역자는 섬기는 것도 좋은데 말씀과 기도에 더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전반기에는 육체적으로 섬기는 일을 더 많이 했다면 후반기부터는 영적으로 섬기는 일을 더 집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올해 요절말씀인 밀알의 진리 말씀을 붙들고 중보기도를 하루도 쉬지 않고 감당하는 중에 섬기는 중 예수님을 깊이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 여름수양회를 앞두고 임아브라함, 정예녹목자님과 함께 말씀역사를 위해 합심하여 기도하며 섬기고, 수양회 환경도 겸손히 섬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7부는 모두가 섬기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 목자님은 매일 같이 센터에 나오셔서 술선수범하시며 사랑방을 청소하시고 화분에 물을 주는 일을 도맡아 하고 계십니다. 어제 청년부 목자들은 저녁 9시에 모여 흠을 청소했습니다. 이제 여름수양회가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몸만 참석할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하며 섬기는 인생을 실천할 것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해 보아야겠습니다. 은혜로운 수양회가 만들어지기까지 엄청난게 많은 섬김이 필요합니다. 뒤에서 보이지 않게 기도의 역사를 이루는 것에서부터 양들을 초청하고 심방 가는 일, 듀오드라마, 율동, 찬양, 그리고 역사 환경을 준비하는 일 등등... 우리가 서로 동역하고 협력해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이 널려 있습니다. 우리가 수양회를 섬기면서 예수님처럼 낮아져 섬기는 것을 깊이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II. 소경거지를 섬기신 예수님(46-52)

예수님이 예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매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매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지나가시는 분이 나서서 예수시란 말을 듣고는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46,47) 그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였는데, 많은 사람이 그에게 꾸짖어 잠잠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더욱 크게 소리 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셨고, 그는 걸음을 내버리고 뛰어들어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셨고, 그는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셨고, 이에 그가 보게 되어 예수님을 길에서 따르게 되었습니다.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을 왕이 되실 분으로 여기고 예수님 덕에 고관들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이런 기회를 잡고자 제자들은 서로 시기하고 경쟁했습니다. 서로 제자들

중에서 으뜸이 되고자 했고, 다른 사람을 주관하는 자, 섬김을 받는 자, 권세를 부리는 자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이런 제자들이 추구하는 것은 예수님이 가시려는 길과는 정반대의 길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들 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그럴거면 그들은 예수님을 따를 필요조차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 이런 제자들의 상태는 영적으로는 하나도 볼 수 없는 맹인과 같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이 맹인을 통해서 자기들을 돌아보기를 원하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따르지 못하고 있는가를 깨닫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것을 깨닫고 다시 예수님을 찾으며, 예수님께 부르짖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의 보지 못하는 영적인 눈을 뜨게 되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세상 사람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이 되는 것, 자기를 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들을 살리기 위하여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다시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아무도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속에 숨긴 욕심과 헛된 꿈에 사로잡혀 놀라며 두려워하며 엉거주춤 예수님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속셈을 드러내고 세상 사람들이 얻는 것을 자기도 얻게 해 달라고 주장하게 될 뿐입니다. 그런 요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예수님을 그만 믿고자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을 회복할 때, 자신이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깊이 인식하게 될 때, 다시 예수님을 찾으며 부르짖을 수 있게 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런 사람들은 오늘 말씀에서처럼, 기독교 신앙의 길은 예수님이 앞서 가신 십자가와 부활의 길 외에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직 그 길을 갈 수 있게 됩니다. 이 길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갈등하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마치 본문의 맹인 바디매오가 믿음으로 눈을 뜬 후에 예수님을 길에서 따른 것 같이 예수님의 가시는 길을 따라갈 수 있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의 인간적인 본성은 나를 자랑하고 내가 칭찬과 영광을 받고 싶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 한번 임의로 주관하고 권세를 휘둘러보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위대한 인생은 다른 사람을 앞세우고, 다른 사람을 칭찬해주고 다른 사람이 잘되도록 도와주고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도록 밀거름이 되어주는 인생이 위대한 인생입니다.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번 여름수양회를 준비하면서 내가 종과 하인이 되어 섬겨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살피고, 섬기는 중에 생명이 살아나는 복된 천국잔치가 준비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